

특별기고

행정통합과 인공지능 혁신거점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다. 행정통합으로 인구는 약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60조원 규모가 되면서 인구나 GRDP 모두 전국대비 약 6.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대통령은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으로 5급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역별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지역자율형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발전모델의 핵심은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에 있다.

2019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광주 AI 대표도시의 위상을 전남과 함께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도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월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했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조원의 인공지능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모두의 AI 실현, AI 고숙도로 구축, AX대학원 신설, 아메 AI 수도로의 도약, 5급3특 연계 AX(인공지능

대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AI 3강 도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고, 범국가 AX 협업을 강화해 AI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AI 기반 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AI 핵심기술 및 AI 전환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한다. 올해 부처별 인공지능 활용 추진계획에는 광주 지역 규제 프리존 적용,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구축, 광주·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여건과 밀접한 사업들이 이미 포함돼 있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힘을 모아 인공지능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명실상부한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역특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중심 국토 서남권 자율제조 거점 형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의 초광역 버티컬 AI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협력하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별 고유한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한 버티컬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버티컬 AI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대학의 AI 관련 학과 및 대학원을 연계해 공동 연구를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구현을 통한 최신의 AI 모델 개발과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대학 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AI 기술 경쟁

력을 강화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AI 분야 과제에 지역혁신기관과 AI 유치기금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증 데이터 기반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규제 프리 기술개발·실증 지원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 단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다양한 주행 상황 학습이 가능해진다. 실증을 보조적 수단 이 아닌 자체로서 산업화해 규제·공간·데이터 묶음형 실증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정에서 AI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례 개정으로 AI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AI는 첨단기술 도입 관점에서 운영관리 강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신뢰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이 AI를 위협하게 생각하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결국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접근성,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궤멸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확대 및 산업 육성(27%)'이라고 응답했다. 광주의 기술, 인재, 플랫폼과 전남의 공간, 자원, 에너지를 결합해 지역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우리 미래를 지켜줍니다

임동곤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산과 들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화사한 봄꽃들이 산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이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기운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매년 이맘때면 건조한 대기와 잦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번지며, 수십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과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곤 한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봄철 가뭄이 길어지고 산불의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32%)나 논·밭두렁 소각(23%), 담배꽂초 무단 투기 등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틀어쥔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설 새 없이 불어오는 강한 해풍은 작은 불씨도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 보내어 대형 산불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계다가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이 많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돼,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으로

불길이 옮겨붙었을 때 초기 대피나 자체 진화가 어려워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대응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휘망을 구축했으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인근의 119안전센터 4개소를 거점안전센터로 지정해 초기 진압력을 높였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를 마을 단위로 추가 설치하고, 산불 특화형 고압 펌프 등 전문 진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산림 인접 마을과 등산로 주변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과 걷잡을 수 없는 바람 앞에서는 관 주도의 소방력만으로 산불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산불 예방은 소방관들만의 몫이 아니라, 산을 찾고 숲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상의 약속이자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산불로부터 안전하고 푸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실천 수칙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보다 실이 훨씬 크다. 수확 후 남은 영농 부산물은 소각 대신 파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산행 시 인화 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다. 입산 시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애초에 집에 두고 올라야 하며, 산림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행위나 야영, 휴먼은 절대 금물이다. 나의 작은 즐거움과 편리함이 수많은 생명과 터전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투철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산불은 초기 진압이 성패를 가른다. 불길이 커지기 전, 발생 초기에 헬기나 진화 인력이 투입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산행 중이나 운전 중 연기가 불꽃을 발견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119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거나 주변의 철탑 변호, 눈에 띄는 지형지물을 함께 알려주면 소방대의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한 번 소실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는 30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불씨 하나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혹시나' 하는 조심성에서 시작된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하나둘 모일 때, 비로소 전남의 푸른 산은 내일도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취재수첩

AI페퍼스의 다음 시즌 기대된다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커피은행 AI페퍼스의 2025-2026시즌 V리그가 막을 내렸다.

최종 순위 결과는 리그 6위. 2021-2022시즌 V리그에 합류한 이후 최초로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기록 부문에서 금자탑도 쌓았다. 올 시즌 AI페퍼스가 작성한 성적은 16승 20패 승점 47점. 16승은 AI페퍼스가 창단 이래 기록한 단일시즌 최다승이다. 승점 역시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앞서 AI페퍼스는 일찍이 새역사를 작성했다. 지난달 15일에는 IBK기업은행을 꺾고 12승·승점 36점을 달성했다. 직후 경기에서는 경관장을 꺾으면서 탈출찌에 성공했다.

2021-2022시즌(3승 28패 승점 11·리그 7위), 2022-2023시즌(5승 31패 승점 14·리그 7위), 2023-2024시즌(5승 31패 승점 17·리그 7위), 2024-2025시즌(11승 25패 승점 35·리그 7위)을 생각한다면 명확한 성과다.

6라운드에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한 AI페퍼스는 최종전에서 승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창단 이후 다섯 번째 시즌을 맞아 전력 보강에 힘쓴 것이 주효했다. 먼저 비시즌 기간 전 현 대건설 소속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FA로

영입하며 수비 강화에 나섰다.

이어 새 외인 선수로 미국 출신의 아보핏스파이커 조이 웨더링턴을 영입했다.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는 1순위로 스테파니 와일러를 이끌었다. 고예림 역시 주장을 맡으면서 팀의 안정감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결국 빠른 결단을 통해 전 일본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로 교체했다. 이들은 모든 공격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고예림 역시 주장을 맡으면서 팀의 안정감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 경기를 마무리하며 "올 시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창단 이후 첫 탈출찌와 최다승·승점 등을 달성했다. 코칭스태프, 선수, 프런트까지 삼위일체가 돼서 달성한 기록이기에 그 의미는 크다"며 "다음 시즌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창단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AI페퍼스가 다음 시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사설

'석유 최고 가격제' 발등의 불은 꺼지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오전 12시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원유 주공급선인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유가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1997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때 이를 시행한 지 30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그때와 비견될 만큼 위중하다는 얘기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이하로 제한된다. 27일 그동안의 국내의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 기간 공급 축소를 막기 위해 정유사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반출을 요구하는 한편 매점매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정유사가 잃는 손실은 정부가 검증 후 정산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원전 재가동 가속, 필요 시 석탄발전 확대 같은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이후 광주지역 기름값은 주유소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하락세를 보였다. 일부는 여전히 ℓ당 휘발유·경유 가격이 1800원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1700원 중반대 수준까지 내려간 곳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중·장기 해법이라고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조치에 가깝다는 데 있다.

즉, 급등하던 유가에 제동을 걸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며 유류비 부담이 큰 계층에 안정 효과를 단기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중동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랜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등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 소비 절감과 대체에너지 확대, 그리고 수급·안보 리스크에 대비한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남진 물축제' 글로벌 웰니스 축제 진화를

전남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장흥물축제(이하 정남진물축제)가 '에비글로벌 축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글로벌·에비 글로벌 축제' 공모에서 이같이 된 것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글로벌 축제 3개와 에비 글로벌 축제 4개를 뽑았다.

이에 따라 정남진물축제에는 올해 2억5000만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상품 연계,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3년간 8억원씩 총 24억원이 지원되는 '글로벌 축제'는 되지 못했지만 전남 축제 중 처음으로 글로벌 축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또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등에서 열리는 '제19회 정남진 물축제'에서 많은 해외관광객 방문 등 결실을 맺을 경우 내년에도 '글로벌 축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정남진 물축제는 도심에 흐르는 탐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한 참여형 물놀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태국 '송크란 축제',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철저한 안전관리, 야간 체류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도 뚜렷하다는 호평도 받았다.

전남도는 2024년~2026년까지 3년 연속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지역 대표축제'로 선정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 기반을 다지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정남진 물축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여름 관광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될 바이다. 물놀이 중심 축제에서 나아가 물·숲·치유를 결합한 글로벌 웰니스 축제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